

◆ On the Name formation in Korea and its entry

# 한국인명의 구조와 그의 기입에 대하여

—IFLA 매뉴얼 「인명기입법」(Names of Persons)의 한국 항목을 위한 우리의 보고—

## 목록분과위원회

위원장 정 필 모  
 위 원 남 승 면 심 우 준  
 이 재 철 최 순 자

IFLA 목록위원회는 도협의 전 기술위원장이었으며 1961년 국제목록원칙회의(ICCP)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던 李鳳順교수(梨大도서관장)에게 목록상 한국인명의 기입문제를 1970년 11월 5일부로 문의해 왔다. 李鳳順교수는 동 문제가 도협의 authority로 답신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 보고 동 공문을 1971년 7월 5일 도협에 넘겨주었다. 동일 개최되었던 목록분과위원회는 회신의 문안작성을 李載喆위원에게 위촉하고 차기회의에서 李위원이 작성해 오는 초안을 가지고 토의하여 결정키로 하였다. 목록분위는 일주일후(1971년 7월 22일)에 열린 회의에서 동문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키로 결의하였다.

먼저 IFLA 목록위원회에서 문의해 온 공문의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FLA는 1961년에 열렸던 국제목록원칙회의(ICCP)의 결의에 따라 자국의 인명기입의 용법(national usage)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IFLA Manual *Names of Persons* (1967년판)이다. 이번 아프리카 인명과 아시아 인명을 위한 보완판(supplementary volume)을 준비하고 있는데 귀국측의 협조있기 바란다.

1967년판의 동 매뉴얼에 기재된 한국인명의 항목은 귀국측(李鳳順교수)보고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새로 나올 보완판에 수록될 한국인명 항을 위하여 전판(1967)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귀국측의 견해를 통보해 주기 바란다.

### KOREA

Elements normally forming part of a name

1. Surname
2. Personal name  
(in two syllables)

In Korean the surname is written first, but Korean authors, when writing in western languages, sometimes reverse the order of the names.

Language: Korean

#### Examples

Lee  
 Kim  
 Kwang Soo  
 Bu Sik  
 Pongsoon Lee

### KOREA contd.

Additional elements included in catalogue headings  
 Prefix used before the name of a Buddhist monk

Examples  
 Seok Il Yeon

Order of elements in catalogue headings

Entry element  
 Surname

LEE Kwang Soo  
 KIM Bu Sik  
 LEE, Pongsoon  
 IL YEON, Seok

Special case of  
 Buddhist monk

Name following prefix

Authority

Korean Library Association

- (1) 기재된 설명과 예시에 대하여 만족스럽다고 생각 하는지,
- (2) 기재된 기입어(기입소—entry element)가 한국의 용법을 정확히 나타내었다고 보는지,
- (3) 기재된 설명과 예시에 대해 보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지.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

- (a) 한국에서의 인명구조(name formation)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설명
- (b) 한국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저자를 다룬 인명사전류의 리스트
- (c) 한국도서관에서 채용하고 있는 번자법에 대한 소개

이 문의와 요청에 대해 도협은 다음과 같이 통보한 것이다.

### 문의 1.2.3에 대하여

IFLA Manual 인 *Names of Persons* (1967년판)에 수록된 한국인명항은 동 내용에 있어 불비한 점이 있으므로 새로 나올 보완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면적으로 시정해 줄 것을 바란다.

### Elements Normally Forming Part of A Name.

1. Surname

Example.

Kim

Mostly in one syllable, but  
 very seldom in two syllables.

Yi

Namg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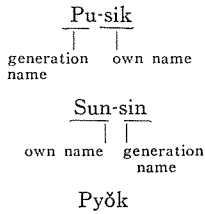
2. Given name

Mostly in two syllables, but sometimes in one syllable.

Of those two syllables, one is the generation name which is common to all members of family belong to the same generation and the other is one's own name, or vice versa; but never to be called

seperately.

Two syllable surname or given name is sometimes spelled out sepearate ly as two words, sometimes hyphed or conncted as one word.



Kim Pu Sik  
Kim Pu-sik  
Kim Pusik

Kim ku

Nam Gung Pyöck  
Nam-gung Pyöck  
Namsung Pyöck

N.B. In Korean the surname is always written first, but Korean authors, when writing western languages, sometimes reverse the order of the names.

Order of elements in Catalogue headings

Example

Entry element	Kim Pu-sik
Surname, followed by given name without comma.	Yi Sun-sin
	Kim Ku
	Namsung Pyöck

요청 a.b.c.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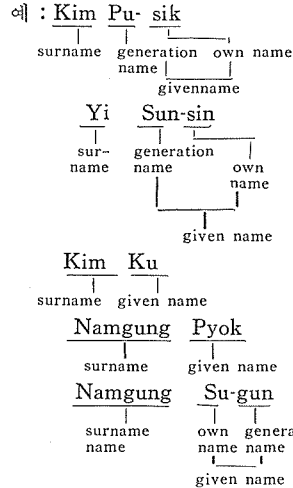
(a) 한국인의 인명구조(name fomation)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설명

한국인명도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대에는 명(given name)만을 가졌었다. 성(surname)을 갖춘 인명은 역사상으로는 BC 12세기부터 나타나 있지만 실제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AD 6세기부터이며, 그것이 일반화한 것은 14세기경의 일이다. 그러나 천민과 노비계급은 여전히 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들이 성을 향유하게 된 것은 1894년 노비제도의 폐지와, 1909년의 민적법이 공포된 연후의 일이다.

한국인명의 전통적인 형식 또는 구조는 중국의 그것과 거의 같다.

한국인명의 대부분은 석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자는 성이요, 나머지 두자는 명이다. 한국성은 10개 내외의 복성을 제외하고 전부 단음절로 이루어져 있

으며, 명은 두 음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는 단음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두 음절로 이루어진 명의 어느 한 음절은 선후에 관계없이 항렬을 나타내고, 또 다른 음절은 제이름을 가르킨다. 그러나 그것을 따로 분리시켜 부르지 않는다.



단음절로 이루어진 명에서, 항렬을 나타내는 요소는 발음(한글형이나 로마자형) 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원형인 한자에는 변방이나 획속에 내포되어 있는 수가 보통이다.

현재 이와같은 전통적인 항렬법은 점차로 깨어져 가는 경향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인명은 이 전통적인 구조법을 따르고 있다.

한국인명은 한글 또는 한자로 기명할 때 언제나 성을 먼저 적고 명을 나중에 적는다. 저자로서 식별될 때 성만으로는 개별성(potency)이 약하여 언제나 명과 더불어 함께 쓰인다. 한국어로 이루어진 모든 사전류와 색인류는 한국인의 인명기입에 있어 모두 성명을 직순으로 기입하고 성과 명사이에 comma를 찍지 아니한다.

그러나 로마자로 기명할 경우는 저자의 기호 또는 번자자(transliterator)의 방침에 따라 성과 명의 기명 순위가 일정치 아니하다. 한국어의 원형을 유지하여 성·명의 순위로 적는 경우도 있고, 서양인명식으로 이를 바꾸어 명·성의 순으로 고쳐 적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어의 순을 지켜 적되 성 다음에 콤마를 찍고 명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두 음절로 이루어진 성이나 명은 로마자로 기재하는 경우, 각각 띄어쓰는 수도 있고, 하이픈으로 연결시키는 수도 있으며, 아주 붙여 쓰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나 로마자로 표기된 한국인명을 볼때 어느 요소(또는 요소들이)가 성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한국인명의 형성에서 특기할 것은 여자가 결혼하여

도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처녀시의 성( maiden name)을 유지 한다는 점이다.

1910년 이전의 한국 승명(僞名)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본성명을 쓰고 있었으나, 보통 이로써 식별(또는 호칭)되거나 저자표시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승명(법명)에 의해 식별 또는 기명되기 때문에 승명을 사전류나 도서관목록의 기입어로 잡고 있다.

예 :

<u>Entry</u>	<u>Original name</u>
Wonhyo	Söl Sö-dang
Iryön	Kim Kyön-myöng

왕과 왕비, 왕족 등의 인명도 본명보다 묘호, 시호, 나 봉호에 의하여 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명 대신 묘호·시호·봉호 중의 어느 하나를 택하여 기입어로 잡고 있다.

예 :

<u>entry</u>	<u>original name</u>
Sejong, King of Yi dynasty	Yi To
Muyöl-Wang, King of Paekche-dynasty	Sama-wang
Anpyong Taegun	Yi Yong

N.B. 한국의 왕명기입에 있어 ALA Rules(1949)이나 AACR (1967)은 역조명(the name of dynasty) 다음에 묘호 (temple name)를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나온 참고도서나 도서관목록에서 그렇게 기입한 예는 찾아 볼 수 없다. 상기의 예와 같이 직접 묘호 또는 시호로 기입하고 있는 것이다.

(b)(c) 한국 도서관에서 편목시 이용하고 있는 인명 사전류와 저자를 위한 authority list

한국 도서관에서 한국인명의 기입을 위해 가장 많이 참고 하고 있는 인명사전은 韓國人名大事典(서울 學園社 1967. 1390p. 고대부터 1966년말 이전에 작고한 11,000명의 인명 수록)과 現代韓國人名辭典(合同年鑑의 別冊, 1967년 이후 연간으로 간행, 약 3,500명 수록)을 그의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d) 한국도서관에서 채용하고 있는 로마자표기법

한국 도서관에서 한국어(한국의 인명, 서명등)를 로마자로 번자하여 그의 자모순으로 배열하고 있는 도서관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곳 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 그밖의 나머지 모든 도서관들은 한글로 기입하여 그의 자모순으로 배열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자기입을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취하고 있는 번자법은 문교부 제정의 「한글의 로마자표기법」(1959년 2월 제정)인데 동 번자법은 일반인으로부터 별로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동법보다는 오히려 McCune-Reischauer system (McCune, G.M. and Reischauer, E.D. "The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based upon its phonetic structure,"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 v.29, p. 1-55, 1939) 이 더 많이 채용되고 있지 아니한가 한다. 이 글에서 예시된 인명표기도 모두 McCune, Reischauer System으로 통일해서 표시한 것이다. 문교부의 표기법은 원칙적으로 일음일자식 번자법을 취한 것이 특색이고 McCune-Reischauer System은 발음에 기초하여 영미어의 발음에 맞게 만든 것이 특장이다. 이밖에 朝鮮語學會의 羅馬字表記法(外來語表記法統一案, 서울 1941, p.43-49)과 Yale대학의 번자법등 20여종의 번자법이 있다. 이러한 상태하에 있는 한국인은 자기의 저서와 논문과 서한 등에 로마자로 기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기 나름대로 번자하여 자기 특유의 로마자명을 가지고 있다. 이 결과로 한국문자로는 같은 성인데 로마자형으로는 딴 성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 허다히 생긴다. 예로 로마자로 표기된 한국성 Yi, Lee, Li, Ree, Ri, Rhee, Rhi, Rhie, Rhieh는 모두 한 성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떤 특정한 번자법에 의하여 기입어를 잡고 있는 도서관은 그저자 특유의 로마자명이 손쉽게 얻어지는 한, 그 형으로 부터의 참조를 내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인 사 소 식

### 손성우 이사 도임

본 협회 이사이며 건국대학교 도서관 사서과장이신 손성우 선생은 지난 7월 초순에 일본 도서관계를 시찰하고 10일만에 귀국하였다.

### 한상완 이사 흥대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참고사서로 일하던 한 상완 선생이 지난 7월 1일에 흥익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 윤 병석 관장 구미 시찰후 귀국

국사편찬위원회 도서관장이신 윤 병석 선생이 지난 4월 11일 미국으로 떠나 미국내의 각급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사 관계 자료를 두루 돌아보고 지난 7월 23일 귀국하였다.

### 서울시립 남산도서관장 갱질

서울특별시립 남산도서관장으로 계시던 최 창균선생이 지난 7월 2일부터 문교부 대학교육과장으로 승진되었고 신임 도서관장으로는 박희규선생이 부임하였다.